

# 올 가을 부산은 축제로 ‘들썩’

## 범어사 9월 22~24일 개산기념 문예대제전 개최

범어사(주지 대성)가 개산 1328년을 맞아 '2006 범어를 찾아서'를 주제로 개산문예대제전을 연다. 범어사는 올 개산대제를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6개 부문 27갈래의 행사로 부산 시민, 불자는 물론 전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어사는 8월 5일 범어사 신행단체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신행단체장과 실무자 등 20여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범어사 문예대제전은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를 강화한 행사로 꾸미는데 초점을 맞췄다. 학술, 의식, 전시, 공연, 체험 등 분야별로 나눠진 행사는 불거리, 체험거리는 물론 불교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까지 풍성하다.

우선 동아시아불교학회 주최로 열리는 국제학술포럼이 주목된다. 불교와 현대세계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기초발제에 이어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해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의 과제와 동향을 점검한다.

특히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는 동시대 건축공학과 운석학회가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일제 잔재 청산을 중심으로'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준비하는 본말사 문화재 전시회는 평소 보기 힘들었던 말사 유물을 상설 전시하는 자리다. 국청사, 성주사, 선암사의 유물과 탕화

### ‘현대세계’ 주제 국제 학술대회 불무도 등 체험거리 풍성 말사 유물 상설 전시도

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도 준비 중이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야생화심기, 컵 만들기, 한지공예 만들기, 불무도 배우기, 전래놀이 한마당 등도 다채롭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불교의 전통 의식인 다비식과 천도재를 문화재적 가치로 재조명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장중한 시간도 마련된다. (051)508-312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경전 무료보급 110만부 돌파 백용성 유훈실현후원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지도법사 도문 스님, 이하 백용성 유훈후원회)가 펼치는 경전 보급이 8월 1일 110만부를 돌파했다. 백용성 유훈 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발간한 <상역과해 금강경>을 1차로 각 사암에 법보시 했다"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2차보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상역과해 금강경>은 <금강경>을 상세하게 분석해 과목별로 해설했으며, 제호는 명필 오세창 선생이 쓰고 동원완규 스님이 서문에 사구계를 친필로 추서했다. (063)353-0108

이준엽 기자

### 미타선원, 시민선방 개원법회 현각 스님 등 법문, 9월 16일까지

24시간 개방되는 시민선방을 열어 화제를 모았던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시민선방 안심당(安心堂) 개원을 기념해 참선 안심법회를 연다.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법회에는 하버드대학교 불교학 박사과정 중인 임미 스님(8월 19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범양사에서 정진 중인 지하 스님(8월 26일)을 비롯 주지 하림 스님(9월 2일), 35년간 선방 수행으로 살아온 안심당 참선 지도 스님(9월 9일),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 사가자'의 저자 현각 스님(9월 16일) 등이 법문한다. (051)253-8687 천미희 기자

### 경남 복지시설 관리자 세미나

영남권 불교복지시설의 화합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해 설립된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효천)가 제 1회 불교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8월 18-19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경남 25개, 울산 3개 등 총 28개 복지시설 관리자 150여명이 참석해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비롯 재가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자원봉사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보건복지부 강운구 前 차관, 김형균 경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경남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강희숙 회장, 무학소주 최재호 회장 등의 강의로 열린다.

천미희 기자

### 담양 옹화사, 구오사미 수계산림

담양 옹화사주지 수진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아일다울원에서 제3차 동자승 수련대회 및 구오사미 수계산림을 병행했다.

6일간 진행된 동자승 수련회에는 이미계를 받은 구오사미와 신일행자 20여명이 참가했으며 수계식에서 5명의 새로운 동자승이 탄생했다. 수계식에서 앞서 수련회에서 동자승과 행자들은 사찰예절, 예불집전 등 습의교육을 받았다.

이준엽 기자

### 초록으로 채워야죠

#### 지울 스님 '공간 초록' 문예열 기자회견 등 다용도로 활용

"비어 있는 공간 초록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을 채워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8월 11일 부산교대 앞에서 문을 연 '공간 초록'. 지울 스님과 뜻을 함께 해온 환경단체, 전교조 부산지부, 불교 신행단체, 교사 등이 가정집을 한 달여 동안 직접 개조해 '공간 초록'의 문을 열었다.

지울 스님도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화복되지 않는 몸이지만 힘을 보탤다. 아예 그 공간에서 머물며 벽지도 바르고 정원을 가꾸었다. 손이 많이 가는 가정집을 택한 것도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원에 들꽃과 앵두나무가 푸르고 포도 넝쿨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 초록은 도배, 페인트칠 등 매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온 이들의 손길이 구축구석 구석이다.

그동안 동동농 소송을 변론했던 이동준 변호사와 박영관 교육위원 등 25명의 운영위원이 100만원씩을 출자했고 앞으로 월회비를 내는 회원을 모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이 공간의 일천 활동을 택한 것이 있어 가치가 더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 이곳은 특별한 관리인을 두지 않고 비워둔다. 그러면 누구나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이곳을 주인처럼 이용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어 주어야 한다. 앞으로 이곳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강연,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간초록은 홈페이지(www.spacechorok.org)를 통해 회원 모집과 후원 물품을 기증 받는다. 천미희 기자

# ‘10년의 나눔’ 새로운 시작이죠

## 불교사회복지회, 경로급식소 토요일마당 ‘업그레이드’

### 매주 1000여 어르신에 공양

지난 10년간 대구 달성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야외경로급식소가 차려졌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1996년 무더운 여름날 불교사회복지회 부설 기관인 노인상담전화 홍보차 태극무늬 부채를 갖고 달성공원을 들렀을 때 "유산균 음료라도 먹을 것을 쥐어줘, 부채는 뭐하든 주죠?"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놀라 감자를 삶고 식혜를 만들어 달성공원을 찾으면서 시작된 토요일마당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8월 5일 달성공원에서 경로급식소 토요일마당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재만 동구구청장, 불교사회복지회회장인 영남대학교 박승우 부총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10년 동안 연합없이 빠지지 않고 참가해 토요일마당을 운영해 온 진행봉사자 이상량, 이만희, 최종현 씨와 자매회, 무지개봉사단, 연꽃향기회, 대구주부봉사단 등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식전행사와 자원봉사자 및 지역연예인들의 공연, 무더위를 날려줄 보양식 삼계탕 공양, 10년을 이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축하하는 자축연의 자리로 이어졌다.

우수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40여개가 넘는 참여 봉사단체의



대구 달성공원에서 10년째 토요일마당을 열고 있는 불교사회복지회의 급식 모습.

추천으로 뽑은 자랑스런 봉사상은 지역 의 불자 가정주부봉사단 보리회(회장 황태연)가 수상했고, 대구은행남구사랑봉사단, 반월로타리클럽과 개인봉사자 신명옥씨가 불교사회복지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제일효병원 의료봉사와 영남북부 가사간병교육센터의 손 마사지안과, 대구시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더욱 풍성했다.

처음 10여명의 봉사자들이 심심일반자비를 털어 200여명의 어르신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토요일마당은 한해 두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드는 사람이 생기고 도와

주려는 손길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40여 개의 고정적인 지역 봉사단이 참여하는 토요일마당이 됐다.

10여년의 세월 속에 참으로 많은 뒷이야기들도 녹아들었다. 아버님 칠순 잔치비를 후원해준 불자도 있었고, 아이들의 생일 잔치비를 후원해준 가족도 있었다. 1997년 IMF 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였다. 후원봉사자는 줄고 실직자·노숙자들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정부로부터 아동급식봉사차량을 후원받고 경로급식소 회관의 집(소장 최경분)도 운영하게 됐고, 2000년 4월 달성공원 무료입장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토요일마당을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 매주 1000여명이 공양을 하게 됐다.

이제 토요일마당은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식사와 문화를 즐기는 노인종합문화의 장으로, 주말 자원봉사의 요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요일마당 운영 봉사자들은 지난 6월 21일 각 봉사단체의 대표 봉사자들로 구성된 토요일마당 10주년추진위원회(회장 오영자)를 구성했다.

10주년추진위원회는 "철저한 위생관리, 즉석조리, 즉석배식의 원칙, 길서연연한 어르신 경로급식문화, 체계적인 봉사팀 운영으로 달성공원 토요일마당이 야외급식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 칠곡 도덕암 삼존불 등 경북 유형문화재 지정



경북 칠곡 도덕암(주지 범광) 소재 몽계당 선의대사(夢溪堂 善誼大師)전영 1폭과 나한전 내의 삼존불(사진)과 직부사자와 16나한상 등 제상(諸像) 21구가 각각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387호, 문화재자료 509호로 최근 지정됐다.

몽계당 선의대사 전영은 상단 왼쪽에 목서로 '몽계당 선의대사전영'이라고 적혀 있으며, 하단에 동지(同治)2년(1863년, 철종13년)등의 연대가 표기돼 있다.

배지선 기자

### “광복절 의미 되새기자” 부산종교지도자 합동기도회

부산지역 6대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8·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를 열었다.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예)는 8월 11일 부산 여여선원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종교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61주년 기념 합동기도회를 병행했다.

6대 종교지도자들은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잃어버린 조국광복의 기쁨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의 뜻과 그날의 기쁨을 되새기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앞장서자"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 청정한 마음으로 부르는 “보살의 노래”

**발원문 108선집**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께서 30여년 동안 대중교화를 위한 사찰, 청소년법회와 불교대학 등 각종 기도, 위문, 사회행사, 직장·가정의 의뢰와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이를 수지 독송하여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끈게 하여 널리 일체서원 이뤄질길 기원합니다.

(덕진스님 엮음 / 4×6판 / 값 6,000원)

**맑은 마음 고운 세상**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단으로서 전국 어린이 포교와 『불교천자문』 저자로서 널리 알려진 덕진스님께서 평소 수행정진이나, 포교 활동 중에서 얻은 마음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

‘더러운 마음’을 ‘맑은 마음’으로 바꾸어 청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스님의 원력이 한껏 풍겨나온다.

〈서문 중에서 - 문화평론가 김용태〉

(덕진스님 지음 / 문고판 / 값 6,000원)

전국 불교서점 및 슈명서점에서  
철찬리 판매중!!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 울산 정토사 (052)258-9944 · 도서출판 부디가야 (051)865-4383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